

5/20/18

설교 제목: 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호세아 2 장 2-13 절

- (호 2:2)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 (호 2:3)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절관주** 암 8:11
- (호 2:4)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절관주** 사 57:3
- (호 2:5)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삼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절관주** 렘 3:1
- (호 2:6)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 (호 2:7)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 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 (호 2:8)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 (호 2:9)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 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 **절관주** 슥 1:13
- (호 2:10)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 (호 2:11)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 (호 2:12)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호 2:13)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호세아 1 장 서론에서 우리는 당신을 배신한 인간을 심판하되 그래도 사랑의 끈을 놓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전에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고 심판하신 후의 회복을 말씀하심으로써 소망을 주십니다.

2 장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 즉 이스라엘의 배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호 2:2)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너희 어머니는 이스라엘 국가,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이 직접 택한 당신의 신부였지만 그들의 음행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자녀된 너희가 거기에 대해 따질 것이  
있으면 너희 어머니와 다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신부인 이스라엘을 모든 이방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도 돌아보는 이 없던 이스라엘을 온갖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혔을 뿐만 아니라 금 은 보화로  
치장시켜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은 살 만해지자 신랑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따라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진정 사랑하였기에 분노하고 질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그런 네 어미와 다투어 네 어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굴’은 외적인 행동, ‘유방’은 내면의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 말은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음란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끝내려면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 간섭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시는 것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에게 음행을 그치지 않는다면 엄중한 심판을 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호 2:3)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호 2:4)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것이 무시무시하지요?

심판이 엄중한 만큼 속히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은 부모의 범죄 행위로 인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못받게 된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왜 이렇게 심판을 할 수 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호 2:5)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삼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들을 주겠다는 유혹에 빠져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따르는 음행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막힌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이 있기까지 그들과 함께 하며 자나깨나 도와준 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풍요를 누리며 살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하신 이도, 광야 40년동안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 주신 이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거주민을 내쫓은 이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땅에 때를 따라 비와 햇볕과 바람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들을 공급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이가 바알 신이라며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베풀어 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는 그를 가시와 담으로 막아 그 길로 못가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호 2:6)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호 2:7)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 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가시와 담은 질고와 번뇌를 가리킵니다.

길을 막고 담을 쌓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당신에게 돌아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당신께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인간은 죄성 때문에 좋은 말로 타이르면 하나님 앞에 돌아 오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고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 옵니다.

누가복음 15 장에 나오는 돌아 온 탕자에서 보듯이 거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흥청망청 다 탕진하고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서야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 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이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범죄한 인간이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 오도록 하기 위해 징계라는 수단을 쓰시는 것입니다.

(호 2:8)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호 2:9)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 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삼을 빼앗으리라

(호 2:10)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호 2:11)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겔고

(호 2:12)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복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도무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똥하게도 바알에게 그 공을 넘기고 그리하여 바알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우매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을 태어날 때와 같이 적신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멸망시키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BC 722 년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의 최후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 2:13)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은혜를 도리어 배신으로 갚은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시되 그들이 바알을  
섬긴 날을 계산해서 그 일수대로 벌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때 즉흥적으로 감정대로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기간과 분량과 질을 따라 정확하게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남 유다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가슴에 새기고 제 평생 잊지 않으려고 다짐하는 말씀입니다.

(겔 16:4)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겔 16:5)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 (겔 16:9)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 (겔 16:10) 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베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 (겔 16:11) 패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 (겔 16:12)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 (겔 16:13)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베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 (겔 16:14)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 (겔 16:15)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므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 (겔 16:16)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 (겔 16:17)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 (겔 16:18) 또 네 수 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 (겔 16:19)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 (겔 16:30)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 (겔 16:32)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 (겔 16:35)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 (겔 16:36)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 (겔 16:37)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 (겔 16:38)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네게 돌리고

(겔 16:39)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헐며 네 높은 대를 부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 두며

(겔 16:40)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겔 16:41) 불로 네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겔 16:42)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겔 16:43)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당신을 배신했을 때 얼마나 분노하셨고 질투하셨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은 적신으로 태어나서 아무도 돌보아 주는 이없이 피투성이가 되어 길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동댕이 쳐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고 불쌍히 여겨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온갖 금은 보화로 장식하여 황후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을 길러 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창기보다 못한 짓거리를 하였습니다.

창기는 돈을 받고 몸을 팔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돈을 되려 갖다 바쳐가며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며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은 멸망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남 유다도 결국 BC 586 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으며 그들에게 잡혀가 70 년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꼭 바알 신을 섬기거나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내가 하나님 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살면서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살면서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삽니까?

여기에 답으로 나온 것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속히 우상을 떠나 온전히 당신에게로 돌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셔서 징계하실 것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되 우리가 범행한 기간과 질과 양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대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깨닫고 그 분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때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거나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한다면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분노까지 사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살면서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지는 못할 망정 배신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것보다 백 배, 천 배, 만 배로 갚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